

# 북스

Books

## ‘북간도 독립군’ 역사에 묻힌 청춘의 노래

### 1930년대 ‘조선인 마녀사냥’ 민생단 사건 소설화

#### 밤은 노래한다

김연수 지음

이념 대결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레드 콤플렉스라는 망령에 시달리며 ‘빨갱이’라는 딱지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다.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의 한국 사회는 디지털의 가면 속에 감춰진 야만이 스타는 물론 불특정 다수를 괴롭히고 있다.



1930년대 초반 북간도의 항일 유격근거지에서는 민족의 독립과 계급 해방을 꿈꾸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꿈을 꿨던 독립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기막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적인 동지에게 죽어간 혁명가는 무려 500여 명, 이들은 일제의 거들떠 보지 않던 내지 조직 내부에 감입이 숨어들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일본 스파이로 몰아 죽였던 것이다. 역사의 전전에서 밀려나 있었던 민생단 사건이 소설로 되살아났다.

소설가 김연수(38)가 중국공산당의 ‘조선인 마녀사냥 사건’으로 불리는 민생단 사건을 장편소설 ‘밤은 노래한다’로 펴냈다.

소설은 민생단 사건 속에서 비극을 경험했던 70여 년 전 청년들의 삶을 통해 인간 내부의 폭력성과 세계의 변화를 꿈꾸는 열망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

작가는 “어떻게 가장 친했던 사람끼리 서로 죽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싶었다”며 소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설은 김해연이 사랑하는 연인 이정희가 죽기 직전 보낸 편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김해연은 조선인은 입사하기 힘들다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측량기사로 일하며 혁명이 뭔지도 몰랐던 평범한 인물. 하지만 연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악선생인 줄로만 알았던 연인이 혁명 조직의 일원이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 이정희와 함께 독립투쟁을 했던 박도만, 최도식, 안세훈, 박길룡의 이야기가 얽히면서 김해연은 민생단 사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된다.

하나같이 이정희를 사랑했던 그 남자들은 서로에 대한 질투심과 독립을 향한 투쟁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차례로 죽임을 당한다.

다른 한쪽에선 김해연이 자신의 사랑을 이용하고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들을 향해 복수를 다짐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변절자 최도식을 죽이려 갔던 김해연은 총 앞에서 이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편지를 쓰게 된 뒷방의 사연을 접하게 된다.

소설은 이들을 통해 파괴적인 악마성과 자기희생적인 사랑 모두 결국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인간적 보살핌을 보여준다.

저자는 작가의 말을 통해 “지난 5월 말 촛불시위 현장에서 전경을 앞에서 춤추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본 뒤 그 과정에서 소설 속 화자 해연이 복수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봤다”며 “그 이유는 어제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만 당시 복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김연수. <문화과지성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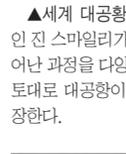
“이제는 ‘어떻게 가장 친했던 사람끼리 서로 죽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싶었다’며 소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과지성사·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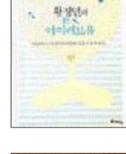
## 새책



▲책 캔필드의 응원=“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로 유명한 책 캔필드가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예문·1만2천원>



▲세계 대공황-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미국의 경제학자인 진 스미얼리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 대공황에서 벗어난 과정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한 책. 저자는 수많은 연구자료를 토대로 대공황이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지성사·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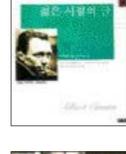
▲황정민의 P.S. 아이러브유= 10년째 KBS 라디오 ‘FM 대행진’을 진행해 온 베테랑 라디오 DJ 황정민의 감성есе이. 결혼 후 아내와 엄마로 살아가는 이야기, 언제나 변함없이 뛰어난 응원해주는 가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독자들에게 형식으로 담았다. <예담·1만1천원>



▲황제의 용인술=진시황과 유방, 조조, 이세민, 무척천, 창기조간, 주원장, 건륭제 등 11명의 황제에게 인해 경영 노하우. 황제의 총애를 받은 인재들의 특징과 장점에 ‘모략’ ‘지략’ ‘책략’ ‘용병술’ ‘처세술’ 등으로 나누어 실렸다. <김영사·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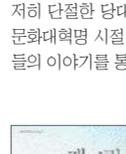
▲다중인격의 심리학=과학·의학 전문 저술가로서 명성을 쌓은 저널리스트 리타 카터가 ‘다중성’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본 심리 교양서. 심리학과 최신 뇌 과학, 다중인격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인간이 지닌 다중인격을 분석했다. <교양인·1만4천800원>



▲젊은 시절의 글-알베르 카뮈 전집=카뮈가 열여덟에서 스물한 살 사이의 문학청년일 때 공책 등에 남겨놓은 열아홉편의 짧은 글을 엮었다. 카뮈의 시, 문학작·철학적 비평 성격을 따는 에세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사유, 독서 노트 등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실렸다. <책세상·1만2천원>



▲여우야, 뉴욕가자=뉴욕 알짜배기 소꿉친구 & 여행=소꿉친구리스트 오하영이 말하는 뉴욕 가이드 북. 뉴욕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부터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예술·문화, 꼭 봐야 할 음식점, 쇼핑 노하우까지 다양한 정보가 실렸다. <위켄북스·1만2천800원>



▲독자들-중국 당대문학 걸작집 3=위화, 수봉의 주류문단과 철저히 단절된 당대문학의 ‘이단아’ 한둥의 성장소설. 1970년대 중반, 문화대혁명 시절 중국의 소도시 궁이현에서 살았던 열네 살 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 현대사를 날카롭게 풍자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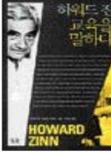


▲개더링=노벨문학상, 공쿠르 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의 맨부커 상을 수상한 작품. 아일랜드 출신 작가인 앤 래라이트가 단절된 한 가정을 통해 한 맺힌 아일랜드의 역사와 현실을 그려냈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천원>

### 진보학자 하워드 진

#### 민주 교육을 말한다

노암 촘스키와 함께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하워드 진이 생존을 위한 교육이 아닌 공존을 위한 민주 교육을 얘기했다.



하워드 진은 2004년 1월 공저자인 도널드 마세도 보스턴대 교수와 나눴던 대담과 1999년 하버드대에서의 강연, 각종 잡지 인터뷰와 기고문 등 미국 교육 체계를 주제로 한 각종 대담과 강연을 묶어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한다’로 펴냈다.

극소수의 생존을 위한 미국 교육을 꼬집는 하워드 진은 언론·기업이 이익 재단 등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된 오늘날 교육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를 펼쳐 또 교육의 큰 틀을 제시했다. 또 교육 문제의 해법은 교육 체제 바깥쪽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주교육을 통한 공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리·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

## 주류 아닌 ‘방외인’ 삶은 여행과도 같은 것

#### 지금 행복해

성석제 지음

소설은 등장 인물의 성격을 뜯어 보는 맛에 읽는다고 했다. 별것 아닌 줄거리를 따라가다 손을 놓으려다 가도 어디서 본듯한, 누군가를 닮은 듯한 인물들을 보면 다시 머리를 들이밀 때가 많다. 때문에 소설가들은 저마다 새로운 성격 창조에 공을 들인다. 소설가 성석제(48)는 특히 이런 인물 만들기엔 탁월하다.

그의 열한 번째 소설집 ‘지금 행복해’에서는 술꾼, 도박꾼, 삼류 대학생, 낚시꾼 등 개성 넘치는 인간들의 삶이 펼쳐진다. 이들은 주류가 아닌 방



외자에 가까운 비주류 인생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삶에 집착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애뜻한’ 인물이기도 하다.

작가는 ‘여행’과 ‘종족’이라는 장치를 사용해 이들의 인간성을 극대화시킨다. 특유의 입담과 재치 넘치는 유머감각까지 합쳐져 소설은 재미있다.

‘여행’ ‘설악풍경’ ‘피서지에서 생긴 일’ 등 절반 이상의 작품이 여행을 소재로 했다. ‘여행’ 속 만재, 봉수, 영당이나,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양우, 인우, 종술은 그런 의미에서 성석제 표 ‘놈, 놈, 놈’이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처럼 동행 길에서 마주치는 상황에 때로는 영악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또 때로는 순진하게 반응한다. 친구라면서도 우정 때문에 편가를 양보하는 그런 인물들이 결코 아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표제작은 ‘종족’을 통한 인물 창조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도박에 중독돼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에 중독돼 교도소까지 다녀온 아버지는 이혼 이후 알코올중독자가 돼 재 발로 요양시설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쁜 것에만 중독된 것은 아니다. 돌봐주지 못한 아들에게 미안해 하며 친구로 대하는 것이나,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작은 일에도 눈물 흘리기 등은 또 다른 중독이다.

낙천적이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를, 그야말로 친구 대하듯 하는 아들 또한 흔한 인물상은 아니다.

“아버지에게 이혼서류를 갖다주고 어지간하면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는 아들이 인위역사에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유별난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다”(67쪽) 그 때도 속내를 한타다 부모의 이혼에서 상처받은 속내를 천연덕스럽게 감출 줄 아는 별난 아들이다. <창비·9천800원>

/김주정 기자 jnews@kwangju.co.kr

9인의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압박배기”

### 법원경매전문도우미

대표 362-6001, 무료상담 080-090-4989

토지-광안동 신촌동(1동일반주거지역) 1115㎡ 195600 199000  
광안동 신촌동 3269㎡ 3945900 2951100  
광안동 연산동 1498㎡ 3180 2200

구	소재지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전남	광안동	1115	195600	199000	3269
	신촌동	3269	3945900	2951100	1498
	연산동	1498	3180	2200	
	광안동	1115	195600	199000	3269
	신촌동	3269	3945900	2951100	1498
	연산동	1498	3180	2200	
	광안동	1115	195600	199000	3269
	신촌동	3269	3945900	2951100	1498
	연산동	1498	3180	2200	
	광안동	1115	195600	199000	3269
전북	광안동	1115	195600	199000	3269
	신촌동	3269	3945900	2951100	1498
	연산동	1498	3180	2200	
	광안동	1115	195600	199000	3269
	신촌동	3269	3945900	2951100	1498
	연산동	1498	3180	2200	
	광안동	1115	195600	199000	3269
	신촌동	3269	3945900	2951100	1498
	연산동	1498	3180	2200	
	광안동	1115	195600	199000	3269

한마음클래블경매(주) ■공인중개사 전문상담 (062) 361-6014  
■이현숙 010-6415-2680

###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인터시티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 공시가·감정가 70%이하

- 용현동 대지 357평 건평 862평 전세 9천 원
- 820 공시지가 23999원 매도 17922원
- 능성동 200평 공시지가 922천 매도542천
- 임동기평 공시지가 171천 매도 192천
- 안동 상암지 123평 원동,다세대 적합 대운 2억 공시지가 3922천 매도 2932천
- 백운동 로타리 모빌과 단원주점 대지91 건평 294 대운195천 원 시원적합 3억1천
- 대인동 대지 51평 4층 건물 156평 공시지가 3억 3300 매도3945천
- 우산동건물중의 4층 독서실 95평 매입 4억 7500 은행2억 매도 3억
- 산안동 상암지 93평 공시지가 3922천 컨테이너 적합2억6000만원
- 남구 송하동 보문빌딩 8850평(29256㎡)당도 6천 공시지가 295800 매도 1922천
- 사동 대지 467㎡(141평) 건물 170 평시가 7억 6500 평매도 3947천
- 영안동 삼계면 사원리 주거지 1404평 건평 2억 1100 평매도 1925500

#### 감정가이하

- 대인동 대지100 건평367 노래방-PC방 원동-부동 주택 45평 반인10건평 8933천
- 대인동 버스도 4층건물 대지23 건평77평 3층은 공실 1억6천5백
- 화순읍 정동지 3254㎡ (984평) 주유소와 주택 있고 공시지가 10억9천 매도11억
- 원동-다세대주택 상촌동 내지지 485㎡(147평) 공시지가 1929천 매도 1927천
- 이포동 운림동 우동1자 56평 1945200
- 이포동 계림동 우동1자 57평 분양 3942800 개인 사정상 금매 295천

부자  
●송정동 내지지 1085㎡(330평)청고, 다세대 적합 평면 66만원(2억2천)

#### 우주센터 고풍 상가부지

고용특동 터미널 옆 상가부지. 다용도사용가능, 약1200평 평당가격 70만원 특동시내초 입구(군인화관)뒤 광주-고속간 우주센터. 고속도로안공사(현재공사중) 광주 40분 거리, 여수-고속간 연 육교, 안공사(현재공사중), 30분거리로 상가, 최고의 위치로 부상되는 지역. (관리지역) 특동신원조선소 확장된 약20만 평 인구증가동. 내년초 소득도 개통중, 특동단종차단지 조성확정됨.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지역)

#### 바닷가 펜션,부지등 다용도 사용

고용 특동면 대전리 해수욕장 옆 약 4천평, 평당 7만원 바다와 접한 작은 오산과 유자밭포함 광주-고속간 고속도로 (현공사중) 완공시 30분거리로 광주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임. (관리지역) 장거리 바닷가 관리지역 약 700평 특동인원(평) 전원주택지로 최적

#### 아름다운 섬, 고풍특량도 풍차관광 예정지

약 800평 당3만원 낚시터 등 별장지로 최적 바다와 맞닿는 지면이 약 100미터로 전망 좋고 낚시터, 현재는 1 일 1번 섬투어리즘 있음. 특동청에서 섬까지 약 10분거리로 전기자동차 약 20호 거주하는 아름다운 섬. (낚시사 배 수시운행함)

주적/081843-7005  
H.010-8004-6669

#### 대인동삼일부동산

☎(062)223-1140, 5210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